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4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교회 주변 집중 전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5월 27일 전 교구가 하나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중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지리적으로 보면 일단 교회 주변지역(1-6교구)이다. 이 지역의 영적 상황은 어떠한가? 이곳은 어느덧 특유의 의미를 지니게 된 ‘강남’이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인 이미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가장 가까운 역삼·논현·삼성·도곡·대치·신사·압구정동 일대는 거의 완벽한 소비지역이다. 돈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빌딩숲, 수많은 식당과 술집들, 여관과 호텔, 옷가게와 온갖 소비문화를 선두해 가는 가게들도 즐비하다. 얼핏 보아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값지 않은 분주한 영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척박한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르람과 파루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내셨고, 불가늠해 보이는 세리와 창기들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셨다. 문제는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의 교구위원회는 이미 5월 8일(토)에 남년전도회연합회장단을 대상으로 전도설명회를 가지면서 모든 상황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각 교구별 전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7일 집중전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일 전도는 1교구에서 6교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8-17교구는 1-5교구를 지원하고, 7교구는 6교구를 지원하여 총 694명의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물론 자원하여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주변 전도가 단순한 전도지를 돌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큰 영적 싸움을 기억하고 뜨거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오늘 아버지주일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엡 6:1)

오늘은 아버지주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고르반’의 모순을 꼬집으신 적이 있다(막 7:11).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신 것은 종교적 행위를 앞세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슬며시 접어두는 위선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우리를 안에서 이룬 종류의 위선이 자리잡아가지 않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금주의 영성훈련

15교구 - 5월 14일 / 16교구 - 5월 13일

차량부 봄 수련회 지난 5월 5일에

차량부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계산에서 봄수련회를 가지고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강명태 목사)을 들었다. 교회의 구석진 곳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이 늘 기쁨과 감사로 설립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소석장학생후보자 공동체 훈련

장학위원회의 충현소석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훈련을 오는 5월 15일(토) 오후 3시 청계산에서 실시한다.

지휘자 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일 시: 1999년 8월 11일(수)-14일(토)
장 소: 충현교회
참가인원: 300명 선착순(지휘 200명, 반주 100명)
참가비: 4만원
접 수: 1999년 7월 21일-8월 4일
기타 문의: 찬양위원회실(552-8200 교환 260번)

남년전도회 연합회 회장단 기도회 및 수련회

지난 5월 8일 남년전도회 연합회 회장단은 경기도 광주에서 기도회집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원래회를 대신하여 모인 이 시간을 통해 회장단원들은 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99년도 전도계획 및 5월 27일에 있을 교회 주변 집중전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구 외국인 총동원 모임 5월 15일

국제교구(영어예배부)는 5월 15일(토)에 국제교구 소속의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신앙 향상과 국내 외국인 전도를 위하여 외국인 가족 초청집회를 갖는다.

평신도선교사 임명 김은미, 이희진

당회는 대학부에 소속하여 사역하던 중 각각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를 선교사역지로 정하고서 출국한 김은미, 이희진 성도를 평신도선교사로 임명하고 중보기도로 후원기로 하였다. 김은미 평신도선교사는 지난 4월에 출국하여 현재 방글라데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있는 이희진 평신도선교사는 훈련이 끝나는데 대로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예정이다.

한편 당회는 선교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안식절 선교사의 원주인 사역을 추가 지원기로 하였으며,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 선교사의 장녀 소영 양을 본국에 초청하여 일정기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99 함께하는 청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세계로! 교회내 20대 청년을 한 자리에 5월 29일(토), 30일(주일)

청년1부는 교회내 20대 청년을 한 자리에 모아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청년1부의 부흥을 꾀하며 7, 8월의 단기선교, 농어촌, 오지 전도에 힘을 얻어 다함께 사역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99 함께하는 청년’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를 통해 교회내의 20대 젊은이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29일에는 알뜰시장, 먹거리, 일일찻집 및 금년 여름에 가게 될 선교와 전도에 대한 홍보 등의 행사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모든 청년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한 한결 풍성하고 아름다운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1부에서는 단기선교 및 농어촌전도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실시하는 알뜰시장에 많은 교우들의 기증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알뜰시장
5월 29일(토) 오후 1시부터, 분당 뒷마당
기증품목: 문구류, 도서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일반생활필수품, 가구류, 악세서리, 농수산품, 의류 및 기타
- 물품 접수: 5월 9일(주일)-29일(토) 오전
접수처: 설립인전도회실(교육관 1층)
접수문의: 장승구 집사(011-227-7777)
송은석 회장(017-265-4960)
- 먹거리 및 일일찻집
5월 29일(토) 오후 1시부터, 만나눔
• Home Coming Day
5월 30일(주일) 오전 11시부터, 교육관 507호(청년1부실)



김성권 목사

나의 결심 (고린도전서 2:1-5)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

바울의 결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2절). 사도 바울은 ‘내가 작정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를 치워내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만을 가득 채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잘 결합시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도 말하면 그는 대단히 학식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유대교 전통들에 매우 정통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단 하나의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을 위해 다른 모든 학문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알기로 작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도 완전히 세상적인 지식과는 무관하게 전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1절). 바울의 설교는 평이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인류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집중되었습니다. 참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깊은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지극히 이리석게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질은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영생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필요한 것임을 알았고 또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혜의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방법론에

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청중을 사로잡을 만한 적합한 단어와 특별한 문장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의견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기 확신에 찬 말들과 동기를 유발해 줄만한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은 인간적 지혜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 속에서 어릴때부터 의사전달의 여러 방법론들을 습득하게 하고 특정한 행동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지지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케네디나 레이건 대통령처럼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성취를 보면서 장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적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추구하는 최우선의 일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찾고 연구합니다. 속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칩니다. 우리들의 문화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을 위해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열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제 바울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희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은 목회일을 당해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선포방식은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존경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자부심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를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내가 작정했다’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사와 바울의 인사

우리들은 종종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모임을 친근하게 시작하기 위해 서로 인사를 하곤 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은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그의 친구관계와 가족상황, 취미와 직업 등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잘사는 사람인지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어떤지, 또한 그가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의 인사는 매우 어떻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3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는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가 걷기로 작정한 길이었습니다. 병성과 재물과 자신의 기호에 있는 관습을 가지지 않았습니. 대신 그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지혜만이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둘을 섞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4절). 이 능력은 영생의 능력으로 지주의 능력이며 이력을 나타내는 능력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라 하였노라”(5절).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할 때에 그것이 단지 어떤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속된 말 한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선포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선포하는 주님을 주며 그것이 약속하는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지혜에 한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자리잡혀 피흘린 진리로 소진했습니다.

매일 매순간을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주장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주간에 몇 시간이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은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4일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몇 일 몇 시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대답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일 매순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상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건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책임입니다(마 28:18-20). 그리고 이 책임을 기쁘게도 감당할 때 기쁨에는 상이 따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얻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요”(고전 9:18).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위대한 지혜요 상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밖에 다른 상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변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말재주에 대한 찬사를 듣고자 하지도 않았습니. 오히려 그의 모든 관심은 가능한 한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존중하게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기초 위에 놓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모두가 이같이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세계 선교

미리 가보는 단기선교지

파키스탄

금번 여름 단기선교팀 중 한 팀은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파키스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도착하는 선교지로서 이미 몇몇서 첫 시도인 위험도 높은 도시라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파키스탄 현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일찍부터 준비기간을 살아야 하겠다.

1.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 4천 2백만 (현재도 무제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에 달하지만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7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물론, 인도와 마찬가지로 수도의 특권층이 농경과 상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가난에 처해 있으나 이런 와중에서도 국가는 국가 예산의 40%를 군사비로 쓰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회교(전 인구의 97%)의 뿌리깊은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 마개척지이다. 파키스탄은 10여 개의 청문지역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땅이요 가난의 땅이다.

▷ 기도 - 파키스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우상들이 이미 침략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아래 부서지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의 영혼에 복음으로 인한 진정된 소망을 심어 주소서.

2. 파키스탄은 인도가 197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했고, 처음에는 동 · 서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었다 후에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다시 독립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파키스탄에 정착해 있는 인도계와 파키스탄 정부군 간에는 여전히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파키스탄도 사면은 170개가 넘는 종족집단(이중 160개의 부족이 미전도종족)과 6개의 주 언어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방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나라 내각으로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리의 상처'와 내전의 굴이 깊은 상처집은 영혼들의 땅이 되어 버렸다.

▷ 기도 - 분리와 내전과 빈부격차와 종족간 갈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에 유

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심겨지게 하사 이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3. 최근 파키스탄인들은 가난과 불안한 나라의 형편을 등지고 전세계로 흩어져 이민을 가거나 노동을 하고 있다. 영국에만도 45만명의 파키스탄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근로자로 들어와 있다(우리 교회에도 10여명의 파키스탄인 형제들이 등록되어 있다). 해외에 나간 파키스탄인들은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복음에 대하여 훨씬 더 개방적이다.

▷ 기도 - 해외에 흩어져 있는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제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하여 이들을 선교사로 다시 본국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라.

4.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은 전 인구의 1%정도 회교도들에게 밀리받는 힌두교 하층민인 편견적인 신교와 힌두종교) 정도이다. 이들은 직업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선거권도 없고 법정에 서 종교인으로 채택될 자격도 없다. 회교도들은 이들 소수의 기독교도들에게 폭력과 재산 압수, 구타와 투옥,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고, 기독교도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12살된 어린이가 법정에서 자신이 기독교도인이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사형언도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 기도 - 파키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키우 주시고, 이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인내하기를 통해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화하시라.

선교지에서 온 편지-수리남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가

금번 2월 22일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만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파송 12년을 축하하는 귀한 선물을 증언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아무 볼거리가 없는 수리남에 선교부 담당 목사님과 당회를 대표해서 3명의 청년남들께서 다녀가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꿈 속에서 다녀가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리남에서 사역하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사실 처음 사역하던 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출중하였거기에 저희가 아니어도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인교회를 내어놓고 새로 사역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인디안마을인 마마입니다. 오랜 세월 전주교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가난과 천구상이 살아가면서 저지들이 누각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영적인 삶을 도적맞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천주교의 위험 속에서 갈등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운 다음날 교회 지붕에 달았던 십자가는 세 토막으로 잘려져 땅에 냉랭겨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지금 그곳에 교회가 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마에서 약 15km 떨어진 바진사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마을의 생명을 위해 저희는 현지인교회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 신성서를 썼지만 전주교 설교자에 의해 사류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받은 마마의 인디안들이 하러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6개월만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문을 열어 주셨으며, 학교건물을 빌려 창립예배를 드리러 하자 천주교에서 교장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들을 교회를 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독립된 교회 건물이 없는 마마의 교인들이 바진사촌의 인디언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 지난 1월 첫째주에 이곳에 있는 현지인 장로교인들과 함께 오로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바진사촌에서 약 30km 떨어진 비기보이이라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언교회에서 여러분!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 복음을 전한 지 250년이 넘었지만 저희가 선교하는 인디안마을들은 길게 잡아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예수살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증언의 선교사들이 위해 저들이 예수를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좋은 것,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잖아 밋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깊은 장치는 더 많은 인디언들이 복음을 뜻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도식화된 복음을 기다리는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이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수리남은 신교의 자유가 있어 증언에게 복음을 전하도 전하기가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기에 여러분! 신교에 함께 협력할 동역자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성철 선교사 올림

첫 노봉전도 - 심성경 코엑스 앞에서

저가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경이마치게가 달라왔다. "여기는 개인 땅이예요. 여기서는 안돼요!" 나는 곧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생애는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은 전파시입니다. 꼭 볼드다고 놓치지 마세요." 그곳에서 쫓겨나와 첫번째로 만난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요"라며 피해라고 하셨다. 나는 계속 따라가면서 땀을 흘렸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천국에 가셔야지요.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려 있다고 말하지만 한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애야, 그러다 가면 길이 짧겠어, 이 길로 봐야만 안전해'라고 알려 주었다. 천천히 할머니를 전철로가 있어 하듯이 천천히 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할아버지 단 1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해요. 미루시면 안돼요." 할아버지는 믿겠다고 하시더니 내 손가락을 잡고 손도장까지 찍으셨다.

두번째 노봉전도

화창한 날씨가네.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길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도 하셨.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일거리로 구하러 서울에 올라가다가 차비가 없어서 오기도 못하는 신세라고 했다. 나는 주미녀에 있던 만민교회 지체 한 장을 주면서 교

민족 복음화

전도훈련을 마치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거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최 귀 훈(집사, 7교구)

내 지식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아했던 지난 10여년의 세월은 '예수님을 나의 형조자' 정도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조제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전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의 강의와 세 번에 걸친 실습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회 예배시간에 알려 주었다. 내 연락처도 알려 주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알려 주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다.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분은 약속한 예배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

교회 주변 축조전도

교회 주변엔 수많은 가게들이 즐비하다. 미장원에 들어가 주건충현을 놓고 나오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전파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지"라며 비아냥 거렸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다. 주를 위해서 받는 비아냥이 싫지 않았다. 친한 친구 주미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당에는 다니도 교회에는 다니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동서여 나같은 최원인 구원원인 것이 놀랄만 했다.

금번 전도훈련은 나에게 한 영혼의 귀중한 줄을 잃어버리게 주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담배와 기도의 힘을 선물로 주었다. 이제 내 육신의 모습은 절절 나아 들어가고 예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하는 일'로 내 영혼을 예배게 단장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려 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님!

정현자(집사, 중동2부 교사)



하 나님! 당신이 지으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진분홍빛의 진달래와 하얀 배꽃의 조화... 벚꽃 감동에, 저절로 당신을 향한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실로 이러한 풍요 속에서 19년만에 어머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항상 어느 모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과분하게 칭찬하셨고 도리어 자신을 좋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치시는 어머님. 큰 교통사고로 날 뻔한 상황 속에서도 꼭 "주여"를 외치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늘 알려 주시던 어머님. 항상 새벽예배를 땀으로 흘려 눈이 다 나빠지기 전에 말씀 한 자라도 더 보셔야 한다면 단단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

어머님! 죄송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안이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저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님 믿어 보세요. 저의 부부 나란히 새벽예배만 하고, 성경 읽는 일도 소홀히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구역장도 되고 장로도 되어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지도 된 훗날, 어머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모습으로 믿을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결혼 초기에는 집사님이셨던 어머님이 언제부터인가 권사님이 되셨고, 하나님 종으로서의 직분을 집사님때보다 더욱 충성되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일상의 사람들이 시어머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묻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 어머니를 어머니를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이훈 석(집사, 2교구)



96년 11월 2일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의사는 뇌혈관의 여러 곳이 터져 가량이 없다며 수술을 포기하라고 했다. "아버지, 어찌시려고요? 어머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대... 부디 기회를 주세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어 어머니는 기적같이 삶을 연장받으셨다. 수술 후 2년여간 계속된 병원생활을 마치고요 이제는 큰딸인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신다. 처음에 비하면 많이 건강해지셨지만 지금도 대소변은 물론 식사, 세수, 목욕 등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남의 손에 의지하시야만 하는 형편이다. 그 덕분에 나는 때로 심하게 지친다. 관절운동용 헤드리고 욕장에 걸리시지 않도록 들바드리고 저압식으로 소화가 잘되도록 식사를 준비하고 하룻밤에도 두세번씩은 울면서 깨어나시는 어머니를 달래드리면 너무나 힘이 들어 아비지, 저먼지 데려가시면 안될까요? 하는 기도도 나오기도 한다. 담겨진 식구들의 고통이 뻔하건만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훨씬 낫고 싶기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은 고등교육을 받으셨다. 하지만 전통적인 아들선호사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셨던 까닭에 나는 어머니의 낙한 격려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온갖 인랑 속에서 자라왔다. 때로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고 홀대를 받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증에 내 속에 뿌리 내려왔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늦고 병든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내 몫인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던 날이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광경을 목이 새워놓고 혹시 넘어지실까봐 뒤에서 부둥켜 안고 서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로하느라고 한숨을 쉰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저 속에서부터 솟아 올랐다. 가장 못해준 자식에게 자신의 힘없는 몸을 맡겨야 하는 어머니의 속내가 어찌될까. 소리죽여 우는 내 마음이 어머니한테도 전달이 되었을까. 우리는 한 몸이 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 감격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느껴지는 순간 어머니에 대하여 갖고 있던 마음의 벽은 곧 허물어져 내렸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내가 얻은 선물은 또 있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남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많은 몫을 감당해 주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두 딸의 도시락을 챙기고 집안살림을 감당할 것도 남편의 몫이었다. 큰 사이에는 남편은 명예퇴직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내 대신 장모의 병구완에 전념을 다했다. 딸들이 남편에 대하여 어떤 칭찬을 해도 그것은 내가 아는 남편의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이다. 밤새고도 두터운 어머니를 별다른 대책 없이 돌보는 남편과 아이들을 너무도 고맙다. 나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향기를 맡는다. 나는 이번엔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남편에게 가장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아는 동안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는 참 사랑의 모교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가 가장 힘들어 할 때면 나를 업고 가셨다. 결국 나의 어머니의 병상은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윤두한 장로

성도로서의 기본을 지켜달라는 말외에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다. 주일에 교회 출석을 잘하고, 많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회사사람들을 잘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여로들에게 듣는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어머니의 품을 떠난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면 안된다. '부모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자녀를 도맡게 말라'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서 잘 살리고, 자녀를 또한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라. 그리하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0% 정도라고 들었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점은 자녀들이 이들 부모님을 소망부에게 출석하여 함께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는 것이다. 소망부의 집회가 12시 15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갈릴리움에서 있으니 시간에 맞춰 모시고 나오고, 다시 모시고 가는 정성을 각 가정에서 가져 주었으면 한다.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가정들이 꼭 되기를 부탁한다.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장성섭 집사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불의와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경가 장들같이 흐르는 사회가 교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신앙의 전통 이어가길

장성섭 집사

새로운 것만 따라가지 말고 온고지신이란 말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후한 사회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 나가며 이것을 또한 자손들에게 물려 주었으면 한다.

엡 6장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하라

부모님을 소망부!

주원홍 집사

이동수 장로

집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 등록 노인 중 소망부에 나오는 분들이

가정의 달 시리즈 2

“네 부모를 공경하라”

조 철 수(목사, 13교구, 신촌가정부 지도)



“**남**으실제 피로올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밥상으로 애쓰는마 음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뉘시며 손발 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그 은혜 는 한이 없이라.” 우리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이 노래를 많이 부릅 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 다 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편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눈 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 신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때문이 아니겠습니 까? 그러나 대부분 그대뿐입니다. 지나 고 나면 절제 잊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자식에 비해 너무 엇음을 되게 합니다. 가정의 의 복을 외치는 책에서요 부부문제, 자녀 문제에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모에 대 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네 부 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 령일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당연히 해 야 할 도리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외 선 것은 가운데 부모에게 하는 것은 우선입 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 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으면 서 로 모시지 않으려고 양로원에 보내거나 길에 버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 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 부모를 경시하면 저주, 부모를 멸시하는 자 까마귀에게 눈을 먹힐 등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일생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절대적 인 명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 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 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 지는 것을 바라는 자식은 하나님에 올 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지옥에 가도 록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불효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예수 그 리스도를 증거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 첫 어버이날

한 사 라(중동1부)

할아버지(고 한명조 원 조장로)께서 안 계신 어버이날을 처음 맞이한 다. 어느덧 할아버지 가 안 계신 것이 익숙 해져 간다. 사랑하 인 사람도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가는 구나 생각하니 마 음이 서늘해진다.

아직 우리 식구 는 자기 나름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석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자 신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쉬 움일 뿐이다.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목사님이 되시는 것을 보고 돌아가셔야 했는데 ...”라고 아쉬워하신 다. 아빠는 “편찮으실 때라도 고집을 부려 교회에 한번 모시고 가서 새 목사 님을 보시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라 고 아쉬워 하신다. 엄마는 “할아버지께 서 고집을 부리셔서도 식사는 한 가족이 함께 했어야 하는데 ...” 하신다. 중풍으 로 쓰러지신 할아버지께서 원상으로 식 사하시면서 혼자 식사하시기를 원하셨 기 때문에 늘 혼자 식사를 하셨다. 나도 아쉬움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고



싶어하시든 TV 프로보다 향 상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본 것이 끝내 아쉽다. 우리 식구는 모두 이렇게 각자 할아버지께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생각하지는 못하 지만 문득문득 이 런 이야기를 꺼내 면 아버지를 그리워 하 안 계신 것을 아쉬 워한다.

그런데 우리 식구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 있다. 그것은 “할아버지께 서 계신 할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드리 자”는 말이다. 그 뜻대로 사는 방법도 각자는 다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드린다.

가끔은 할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살 아 계실 때보다 오히려 안 계실 때에 더 크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께서 안 계신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부모님을 선교사로 보낸 딸의 편지

김 진 실(청년부)

남아공에 계시는 아빠, 엄마께

우리들끼리만 살면 마음대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당연히 해야 했던 일들을 왜 안 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일장이 되어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요.

이젠 흰 옷이랑, 색있는 옷도 구분해서 빨고 청초 는 자주 못하지만 제법 부지런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도 듣기 싫던 엄마의 잔소리가 그들을 매가 다 잊더라고요. 아~ 이럴 때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구 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은 제가 잔소리꾼이 되어버렸어요. 사소한 것까지 보게 되고 일러 주다 보면 잔소리처럼 되고 말아요. 순간 그런 모습을 발견 했을 때 절로 웃음이 나와요. 말하기엔 좀 속 쓰렸지만 조금은 그런 잔소리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참이 드는 것인가요?

가족이 식사하는 드라마를 보니 예전에 아빠의 이 름없는 국이 생각나더라고요. 3학년때가 4학년때가 엄마가 몸살로 누워 계실 때 아빠가 끓여 주셨던 이 름없는 국, 기억나세요? 감자는 거의 통째로 넣고 파 는 손으로 똑똑 분절해서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 아무도 흥내낼 수 없는 아빠의 스페셜 요리. 보기엔 먹음직스럽지 못한 국이었지만 그 많았던 국 을 한 끼에 다 해치워 버렸죠. 맛은 기억 안나지만 대 미있었던 모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어디 를 가든지 먹는 것만큼은 적응이 빨라요.

몇일 늦게 도착한 것 같지만 엄마에게 선물을 보냈 이요. 아빠도 있다고 침심해 하지 마세요. 남아공스 런 빅타이를 사려고 상점 아주머니와 일련 토크로 해 보았지만 결론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온 적이 세 번이나 되더라고요. 빠른 시일내로 결론 지을 계획에 있었으니 기대하세요.

카네이션을 보니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어제 목소리를 들긴 했지만 이렇게 메일로 주고 받으니 나 단박 친구에게 비밀스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 기 분이에요(가끔 아빠가 시키시는 심부름 빼고). 얼굴 보고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또다른 소중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남아공은 이 제 겨울이로쎄? 감기 조심하세 요.

아빠 사랑 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를 키운 한마디

“이 보배를 집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 의 심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 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고후 4:7)

그해 여름이 참 힘들었다. 이 만큼 여러 곳에서 혼란받고 어른이라고 해도 좋을 만 큼의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내 모습도 변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낙도 모인 여름 사막에서 여전히 불평불만의 미성숙한 모 습을 발견했다. 그동안 드러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내 안에 있었던 것뿐이었다. 밤 새 눈물을 흘리며 ‘여전한’ 내 모습을 놓고 부끄러웠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새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 가 아무리 애초고 힘써봐도 너는 집그릇이 다. 깨지지 쉬운 집그릇일 뿐이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쇠그릇이 될 수 없다. 너는 깨지는 그릇이다. 네가 보게 되는 것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집그릇. 그래서 나는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진리를 깨 들은 아침 더 이상의 절망은 내게 있을 수 없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축복기도에 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날보다 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어 축복해 주심과 같이 우리 영아부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기들을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축복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날 한영준 전도사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말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주시며 우리 중현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이있어 전도되어 교회가 든든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무릎을 얹어줌에 필요한 물병을 우리 영아부 아기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어린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유아부는 지난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드렸습니다. 꽃처럼 예쁜 우리 친구들을 목사님들께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하우이는 목사님께 "우리 할머니 빨리 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작고 힘 없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게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이 어린이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바랍니다. 유아부에서는 오전 9시, 11시에 두 번 문을 열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임미은 통신원)

유치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들"

"어린이는 과일나무와 같이 새싹같이 고운 어린이 꽃처럼 꽃봉오리 같은 어린이 얼굴 푸른 잎과 같은 어린이 마음..." 5월 2일은 어린이주일이었어요. 살랑살랑 바람과 예쁘게 웃는 어린이들은 풍선들은 우리들 마음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참 오늘은 정말 기쁘게 멋진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리는 어린이가 되자구요. 충현의 모든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초등부
갑종교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송원식 전도사님께서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말씀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예선을 한 모든 성령암송 대회도 9명의 어린이가 참가해서 그 동안 갑종교 담은 송씨로써 모두 잘 암송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오미경 통신원)

청년1부
청년1부가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5일 목요일 가결연예미나를 성황리에 마친 청년1부는 곧 5월 행사인 "99 함께하는 청년"에 전원이 매달리고 있다. 이미 가결연예미나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교회내 20대 젊은이를 모아 동력화(動力化) 하기 위해서 "99 함께하는 청년"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미 이를 위해 교사, 임원, 사역자 전원 수련회를 열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이나 준비를 마쳤다.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이 힘으로 미래를의 단기선교, 낙도·오지전도사역을 감당하기를 여부가 행사가 준비하는데 지난 여름 청년1부의 생각은 단기선교사업에 7월 100명, 낙도·오지전도사역에 20개월 200명이 참가하기를 바랐다. 앞으로 전 청년1부 회원이 특장지역에 투입되어 복음화 사역을 꿈꾸며 1999

년 여름을 계획하고 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린다. (정희경 통신원)

청년2부
충현의 아름다운 30대들이여,
청년2부에 오세요

지난 주일 12시 30분 교육관 514호에서 초청 전도단치를 가졌다. 2부예배 후 초목요일들이 출주는 본당과 교회 주문을 풍선으로 장식도 하고 어린이들과 친 교인들에게 행복의 풍선을 나눠 주며 사랑을 전했다. 청년2부에서는 전영준 목사님의 로마서 성경공부란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특선시간에는 들로스중장반의 연주와 시간들만 연주 및 특별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집회시간 동안 아이들은 멋진 선생님들이 찬송과 게임을 하며 놀아 주는 타이머도 준비되어 있다. GBS시간에는 조별모임을 가지며, 신임임에서는 신임 회원들을 위한 멋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면리회에서는 매주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손길로 봉사하며 이번 주일에는 여러 가지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청년2부가 새로 나온 회원들과 행복한 만남을 가졌다. 청년2부에서는 사울은 전도팀과 중앙병원 전도팀의 활판한 전도모임과 청년 지도자 성경공부모임과 영어성경공부까지 집회 후 실시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충현의 30대 여러분! 참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청년2부(교육관 514호)에 오셔서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과 평강을 맛보기를 바란다. (백미경 통신원)

신혼가정부
특강 실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특강을 준비하여 여러 가정들 초대합니다.
제목: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크리스천의 삶
강사: 김진채 장로
일시: 5월 16일(주일) 10시 50분
장소: 교육관 201호

1교구
교회 주변 집중 전도의 날을 앞두고

교구에서는 각 전도회 회장님들과 전도부장이 한 자리에 모여 계획을 하고 미래를 맞대었다. 본방 전도는 주님의 평행이와 부름인 강행해야 하므로 열매 맺음을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지만 모든 거두시는 분을 의지하며 각자 마음 안에 계획하면서 씨이 듣고 줄기가 뻗어나가 있어 자라며 꽃이 피어서 300배, 600배, 10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준비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다.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배나들회에서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누는 분들을 다 참여하면서 된다. 특히 이번 기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작은 불씨에서 큰 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태복 통신원)

4교구
고난의 시대 내대

어머니 세대와 권신들이 일제치하에 6·25 전쟁을 통해 겪은 아픔과 권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신다. 더구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분은 파루로 외롭고 힘겹게 살아야 했기 때문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의로를 받으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하신다. 파루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매·들

자연을 통해
창조주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바쁘다. 종종 걸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느라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닌다. 물론 기도원에 가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성경공부와 찬양대원을 하며 심방을 한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계가 확장되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행복해 하고 감사해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의 어느 하루, 이 모든 바쁜 일상의 분주함을 중단하고 자연을 바라볼 일이다. 그 때도 오로지 느끼기만 해 보자.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방법 중에는 감각으로 주님을 느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터득해 보자. 그 순간의 회의를 맛보자. 그리하여 언어가 없이도 주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비결을 맛보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신록의 눈부시, 갖가지 빛깔로 만발한 꽃들, 봄에 들은 봄바람의 촉감, 바람에 팔랑팔랑 떠돌아다니는 물방울을 뒤집는 나뭇잎, 착한 나뭇가지에 올라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 꽃의 끝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 가운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신다. (원영희 기자)

자녀를 위해 바쳤고 썩은 밀알의 곡경이같이 되어버린 어머니 세대를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에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날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새롭게 다가가신다. (백종훈 통신원)

12교구
가정의 달 행사 마련

가정의 달을 맞아 교구에서는 주일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교구장로들의 뜻에 따라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사랑을 교구를 통해 나누기 위해 철기마다 작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 어린이주일에는 김사님 가정의 특색에 이어 이치원 김사님의 '해마대 불이 되면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기른다면'이란 시를 낭송한 후 갖 맛을 시킨다. 아기로부터 유년부까지 35명의 어린이가 나와 특송을 불러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전도회에서는 예쁜 한복을 입고 선물을 준비해 나누어 주고 목사님께서는 그림을 준비하시어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돈과 육적인 돈이 되는 거지 바나메에 성경말씀을 재미있게 해주셨다. 또한 무디아전도회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에게 충현교회 마크를 붙인 예쁜색에 빵과 과일 간식을 넣은 선물과 함께 예쁜 색의 풍선으로 모자나 캔을 만들어 병실로 돌려 예수님의 좋은 사랑을 전했다. 전도사님에게도 봉사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봉사하는 손길을 힘있게 하겠다. 이 일을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전해지길 기도한다. (이유숙 통신원)

15교구
이강성 평신도선교사와 교제 나뉘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에 평생 투신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혜로움을 한층씩 갖고 있게 마련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하고 있다. 문화란 이런 이들의 지혜를 모으고 분류하고 책으로 간직하며 여러 사람에게 읽히게 하는 것이라고도 쓰인 정화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또한 문화에 속한다. 어떻게 평가되고 여겨질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기독교문화의 아름다운 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삶을 위해 평신도선교사의 길을 택한 이강성 평신도선교사와 만난다. 이 강선 주일 교구모임에서. (한숙경 통신원)

